

MILAL & WORLD

8

장애인 전도 / 봉사 / 계몽

밀알&세계





표지사진

지난 6/25~27에 '밀알 월드컵'이란 주제로 열린 '2026 서부 밀알 사랑의캠프'에서 장애인 참가자들과 봉사자들이 약식 월드컵 축구경기 후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02 | 칼럼

은혜의 단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서

04 | 2026 함께걸음콘서트

찬란한 무대를 위해 모인 100%의 진심

06 | 뜨거운 은혜의 현장

2026년 텍사스밀알 여름성경학교의 기억

08 | 밀알과의 아름다운 만남

밀알과 사랑에 빠지다

10 | 2026년 기획 연재: 밀알의 장애인신학 이야기(8)

장애인의 구원이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의미

12 | 2026 서부 밀알 사랑의캠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가운데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를...

16 | 270일간의 기적

한계를 뛰어넘어 함께 달린 희망의 마라톤

밀알&세계

남가주 • 북가주 • 시애틀 • 밴쿠버 • 텍사스 통합판

통권 제306호 | 2026년 8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장영준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남가주: 562-229-0001 | 북가주: 408-605-2134

시애틀: 425-444-1669 | 밴쿠버: 604-339-4417

텍사스: 267-467-5971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milalsc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칼럼

은혜의 단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서

이스라엘의 메마른 땅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씨앗을 싹 틔우는 이른 비와, 추수를 앞두고 알곡을 여물게 하는 늦은 비는 농부의 땀방울만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우리 밀알의 장애인 사역 현장 역시 이와 같습니다. 사역의 길이 막막하고 메마르게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할 때조차,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궁핍함을 채우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애틀랜타밀알선교단에 메이스빌 지역의 9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하고도 아름다운 '밀알꿈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최근 이곳을 정성껏 관리하며 잔디 깎는 기계로 정원을 손질하던 중,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긴 잊지 못할 장면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날카로운 기계 날이 무성한 풀을 무섭게 베어 나가던 바로 그때,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어미 새 '킬디어(Killdeer)' 한 마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보통의 새들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하고 높은 나뭇가지에 등지를 틀지만, 땅바닥에 알을 낳은 이 어미 새는 거대한 기계의 위협 앞에서조차 결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품에 안긴 알들을 지켜내겠다는 간절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곳곳이 날개를 펼친 그 작은 미물의 모습은 참으로 숭고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켜내는 그 헌신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낱 미물인 어미 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강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장애라는 버거운 삶의 무게와 세상의 차가운 시선



이라는 날카로운 '기계 날' 앞에서도, 하나님은 포근하고 거대한 은혜의 날개를 펼쳐 우리를 덮어 주시고 온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밀알의 장애인 사역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를 품어 주시는 그 크신 날개 아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벅찬 은혜의 현장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사역의 터전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갈급함이 느껴질 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미 새의 날개 아래서 알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았듯,

우리 역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시간표 안에서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굳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가장 적당한 때에 단비를 내려 주시고 크신 날개로 안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진하는 모든 밀알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글 | **최재휴 목사** (애틀랜타밀알 단장)





찬란한 무대를 위해 모인 100%의 진심

5월 25일, 푸르른 5월 봄날의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2026 함께걸음콘서트’가 활짝 막을 올렸습니다. 밀알 커뮤니티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섬김을 나누는 지 갓 1년. 저에게 이번 콘서트는 그동안 이곳에서 마주한 그 어떤 순간보다 가치 있고 눈부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나의 완벽한 작품을 완성하고 관객들에게 기적 같은 감동을 전하기 위해, 무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책임감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는지 온몸으로 깨달은 날이기도 합니다.

관객들이 마주한 단 몇 시간의 감동,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 없이 움직인 치열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 누구보다 일찍 도착한 봉사자들의 손길로 현장은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부터 정교한 무대 세팅, 관객들이 머무를 테이블과 의자 하나를 배치하는 일까지 우리가 마주한 아름다운 무대는 결코 우연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봉사자들의 땀방울이 피워낸 꽃이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소중히 여기며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이들이 있었기에, 비하인드 스토리마저 하나의 찬란한 작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인 친구들을 처음 보는 이들은 편견을 가지곤 합니다. 나와는 다르다고 해서 '편견'이라는 틀에 가두곤 하죠. 부끄럽지만 봉사에 진심으로 임하기 전의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들이 가진 재능은 뒷전인 채 모두를 '사회적 약자'라는 큰 틀에 가두어 놓았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선 친구들이 그들의 고유한 재능으로 온전히 빛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친구들을 보며, 그들이 저희에게 필요로 하는 건 희생이나 무조건적인 도움이 아니라 응원과 격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던 모두의 모습은 어쩌면 아주 작은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 짧은 순간을 완벽하게 받쳐주기 위해 무대 뒤의 봉사자들은 보이지 않는 100%의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떤 봉사자는 관객을 처음 맞이하는

떨림 속에서도 가장 밝은 미소를 전달하기 위해 거울 앞에서 연습을 거듭했고, 또 어떤 봉사자는 원활한 무대 세팅을 위해 사전에 몇 번이고 손을 맞추었습니다. 무대의 큰 흐름과 진행을 담당하며 누구보다 최선의 모습을 보여준 밀알러,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을 빛내던 밀알러, 그리고 친구들의 노력이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하게 빛나도록 무대와 조명을 정성껏 조율하던 밀알러까지. 이들은 모두의 시간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모두가 떠난 텅 빈 무대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 이어서 더 책임감으로 가슴 졸였던 순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경험이 있기에 다른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었던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콘서트에 참여해 한 자리를 채웠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내가 빛나는 법'이 아니라 '친구들을 빛나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밀알은 늘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기적 같은 장소입니다. 밀알을 통하여 우리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고, 그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물들여 갑니다. 관객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찬사를 받을 때,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던 모두의 눈을 저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밀알이 왜 밀알인지, 그들이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계획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전통이 매년 이토록 짙은 성원과 찬사를 받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나 활동이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매번 예상치 못한 큰 감동을 주고 내가 이만큼 성장했음을 선사해 주는 보람찬 공간은 오직 밀알뿐입니다. 콘서트는 막을 내렸지만, 가슴속에 번진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여전히 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아름답게 빛날 기회를 선사하기 위해 진심을 담아 노력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각자의 책임을 다해 완벽한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이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전합니다.

글 | 이채은 (밴쿠버밀알러 2025-09)

주: ‘밀알러’는 밴쿠버밀알의 자원봉사자를 지칭합니다.



| 뜨거운 은혜의 현장

2026년 텍사스밀알 여름성경학교의 기요

텍사스밀알선교단의 뜨거웠던
7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정교한 연출
이 있었습니다. 기온이 100도를 넘어가는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2시 15분
에 열린 일주일 간의 여름성경학교는 그야말로 '은혜의 현장'
이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지역 교회들이 '1일 단기선교'의 형식으로 하루씩 릴레이
이 참여하며 5개 교회가 아름다운 동역의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베다니장
로교회, 인투달라스교회, 뉴송교회, 수정교회, 세미한교회는 각자의 개성과 사
랑을 담아 찬양과 말씀,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가슴속에
예수님을 깊이 새기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온전히 나누었습니다.

현장에는 11명의 천사 같은 장애인 참가자들과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 12명의 헌신적
인 봉사자들이 함께 호흡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봉사자가 자리를 비워야 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하
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 교회의 유스 그룹이 예고도 없이 깜짝 합류해
빈자리를 든든히 채워주었는가 하면, 하루만 봉사를 신청했던 분의 일정이 기가 막히게 핑크
난 요일과 맞아떨어져 돌봄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기도 했습니다. 방학 내내 익숙했던 일상이
바뀌어 잠시 혼란스러워 하던 아이들도, 어느새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금방 안정을 찾고 환하게 웃
어 보였습니다.

인간의 좁은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곁에서 함께 땀 흘린 봉사자들 역시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가슴 벅찬 은혜를 경
험했다"며 감사의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었던, 잊지 못할 여름날의 기록입니다.

글 | 텍사스밀알 홍보부







| 밀알과의 아름다운 만남

밀알과 사랑에 빠지다

저는 요즘 사랑에 빠진 게 분명합니다. 꽤나 많은 순간, 문득문득 ‘밀알’ 식구들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돌아보니 ‘저도 이제 밀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밀알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타코마 밀알’에서 음악 교사로 지낸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가진 재능을 나누겠다는 다소 오만한 마음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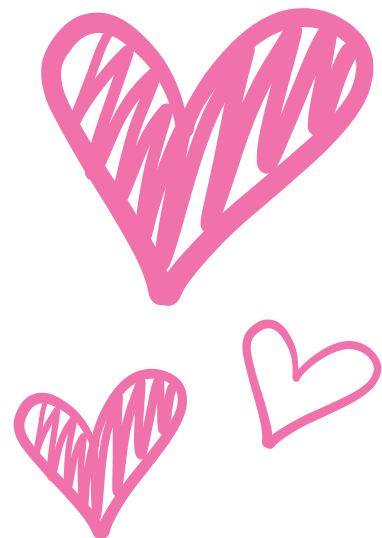
이들의 음악적 기량을 한 뼘 더 키울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고민들이 쓸데없는 저의 교만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어쩌면 제가 주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사랑과 기쁨의 선물이 매주 목요일마다 저에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며 설레는 어린아이처럼, 매주 목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누구나 나이를 먹



어가지만, 밀알 친구들의 시간은 다정하게도 과거 어느 시점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저들의 순수한 동심을 마주할 때마다 저의 시계 태엽도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모’라는 고상한 명함을 내려놓고 그저 ‘박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곳, 밀알은 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숨구멍입니다. 이런 밀알이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제 안에는 늘 춤추는 말괄량이 ‘박현실’이 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찬양 시간마다 무대 위에 올라가 율동을 했고, 중·고등학교 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율동 교사로 무대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



화~~” 그렇게 신나게 찬양을 부르며 뛰어다니던 그 자유로운 영혼은 결혼 직후, 계획에도 없던 사모가 되었습니다. 말괄량이였던 ‘박현실’은 그 직분의 무게에 눌러 고상한 척, 조용한 척, 얌전한 사모의 옷을 입고 20년 동안 깊은 잠에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아이가 목요일마다 다시 깨어납니다. 운동화에 추리닝을 입어도 “사모가 왜 저러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모자를 꼭 눌러쓰고 가도 저라는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그 품이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이런 밀알을 제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밀알은 저의 성장을 돕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매주 저를 조금씩 자라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 묵묵히 사명을 따라 한길을 걸어온 고목 같은 사명자, 장영준 목사님을 보며 저는 조금씩 자라납니다. 매주 두 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도시와 도시를 가로질러 밀알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쏟아내는 그분의 모습은, 어둡고 외로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가장 낮은 곳의 사마리아인을 찾으셨던 예

수님의 뒷모습을 닮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한 이의 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동안,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을 모른 척 지나치던 ‘무늬만 사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몫의 삶이 버거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밀알은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우리 밀알 친구들은 말하는 법과 표현하는 법을 조금 잃었을 뿐, 사실 세상 그 누구보다 선한 이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또 다른 ‘강도 만난’ 교사들인 우리를 찾아와 손잡아 주고 안아주며 사랑을 속삭입니다. 겉으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자신의 친구인지,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당신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르는 참 제자

인지를 말입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니, 앞으로 저의 발걸음도 더욱 분명해지는 듯합니다. 저의 작은 바람은 아주 오랫동안 ‘밀알인’으로 남아, 이들과 손을 맞잡고 이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한때 어느 한국 대형교회의 한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다”며 깊은 회의감을 토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화려한 시스템과 많은 인파 속에서도 정작 주님의 온기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 시대의 아픔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주 목요일, 타코마 밀알에서 그 누구보다 가까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친구들의 순수한 마음속에, 그리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그 따뜻한 온기 속에 주님은 늘 함께하십니다. 이 귀한 감격을 저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더 많은 분이 우리 밀알을 통해, 소외된 곳에 찾아오시는 참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글 | 박현실 사모

(시애틀밀알, 타코마밀알아카데미 음악교사)





장애인의 구원이 교회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면 마지막까지 식탁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판을 정리하는 일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숟가락 하나를 놓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물컵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먼저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고, 봉사자 몇 사람만 그 곁에 조용히 남아 기다립니다.

그 모습은 특별한 장면이 아닙니다. 밀알의 일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오래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식사를 늦게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하나 재촉하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아도 식사는 끝나고, 일정은 이어지며, 하루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공동체는 한 사람의 속도를 받아들이면서도 조금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잃어버림'을 대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길을 잃거나, 관계가 끊어지거나, 소중한

것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 역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일이라고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들려주는 '잃어버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마 동전은 다시 주인의 손에 쥐어질 능력이 없었고, 집을 떠난 아들은 돌아갈 자격보다 돌아갈 용기를 먼저 잃어버린 채 아버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세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존재들은 모두 스스로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목자를 찾아가지 못했고, 동전은 스스로 소리나 빛을 낼 수 없었으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할 아무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먼저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아 길을 나서고, 여인은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안을 뒤집습니다. 아버지는 아

직 멀리 있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닿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은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반복되면, 장애인은 항상 남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남기 쉽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조용히 흔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 먼저 가능성을 살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세



공동체에 미치는 의미

상이 잃어버렸다고 여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군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의 구원은 교회공동체를 향한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교회가 품어야 할 대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장애인을 교회의 사역 대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부르시며, 먼저 기억하신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누군가를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품으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구원은 장애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이야기가 됩니다. 공동체는 더 이상 능력이나 역할을 기준으로 서로를 바

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한 사람을 기억하셨다는 사실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은혜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풁니다. 구원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만, 그 기쁨은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장애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에 새로운 사역 하나를 더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본래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공동체 안에 품는다'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품으신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표현이 복음의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그 순간 교회는 누군가를 환영하는 공동체를 넘어, 하나님의 환영을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가 됩니다.

복음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내는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코 잃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들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의 구원은 그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교회는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공동체 안으로 초대할 것인가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신 이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아마 그 질문 속에서 교회는 조금씩 복음이 꿈꾸는 공동체를 닮아갈 것입니다.

글 | 김정기 목사 (북가주밀알 단장)





| 2026 서부 밀알 사랑의캠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가운데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를
함께 누리다!**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2026년 밀알 사랑의캠프’가 6월25일 (목)부터 27일(토)까지 2박3일 동안 CSU Long Beach 캠퍼스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사랑의캠프는 남가주와 북가주밀알 가족들



뿐만 아니라 ANC온누리교회 GM과 청년 트랙팀, YNC나성영락교회 ‘소망부’ 장애인 부서, 그리고 멀리 텍사스밀알과 캐롤라이나밀알, 멕시코 밀알(후아레스 & 빌라헤르모사)과 과테말라밀알 등에서 약 450여 명의 장애인 참가자들과 자원봉사자, 스태프 등이 참석해 CSU Long Beach 캠퍼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 및 교제를 나

누며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특히 이번 사랑의캠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For God so loved the world)”란 요한복음 3:16 말씀을 중심으로, ‘Milal World Cup’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즐기는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를 우

리 장애인 친구들도 함께 누리며, 참가자들과 봉사자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웃고 즐기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복되고 유익한 사랑의캠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한 주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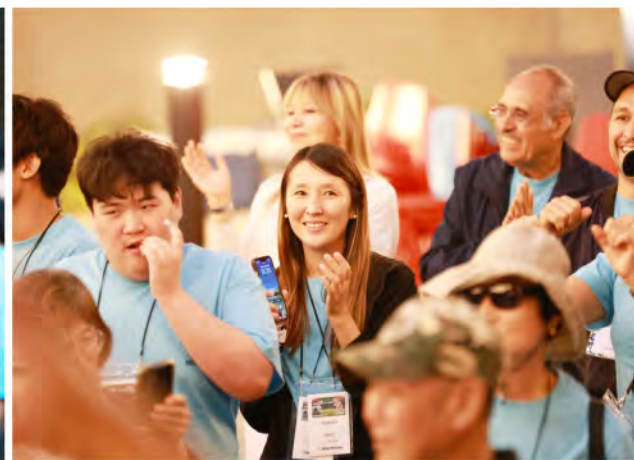
사랑의캠프 첫날은 CSU Long Beach에 도착해 기숙사 방 배정 후 ‘김형건’ 트랙팀 리더의 인도로 본격



적인 캠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ANC온누리교회 청년부 담당 ‘김태정’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시며 개회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족식과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봉사자들이 장애인 참가자의 발을 닦아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했고, 서로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장애, 비장애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그분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동등하게 누리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랑의캠프에서는 장애인 참가자들이 캠프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는 참으로 몽클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어,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둘째날은 참가자와 봉사자들을 지역

별, 연령별로 나누어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으며, Seal Beach 해변에서 신나는 물놀이와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Milal World Cup’이란 캠프 주제에 걸맞게 장애인 참가자들과 봉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월드컵 형식의 축구 경기를 약식으로 진행하고 트로피를 수여하는 시상식도 거행했으며, 저녁에는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무대에서 경쾌한 월드컵 응원가에 맞춰 모든 참가자들이 열정적인 댄스파티를 벌이며 이번 캠프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27일엔 사랑의교실 브랜치별로 공연 발표 후 이번 사랑의 캠프를 위해 애쓰고 헌신한 스태프와 봉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준혁' 나성영락교회 소망부 담당 목사가 인도하는 폐회예배를 끝으로 2026년 사랑의캠프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도 수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끊임없는 기도, 귀한 후원의 손길이 있었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의캠프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참가자와 봉사자들의 가슴 속에 이번 캠프가 평생 잊지 못할 천국의 추억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글 | 남가주밀알 홍보부

한계를 뛰어넘어 함께 달린 희망의 마라톤

지난 3년 동안 암 투병을 하며, 저에게 '다시 달린다는 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그저 막연한 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치의의 권유로 회복을 위해 뉴욕의 장애인 러닝 단체인 'Achilles International'을 알게 되었고, 온 힘을 쥐어짜 내며 조금씩 다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달리던 지난 초가을, 문득 밀알 친구들과 함께 달리는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장애라는 제약 뿐만 아니라 평소 외부 활동이나 운동량이 적었던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리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제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봉사자들과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꿈을 꾸게 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달리며 육체의 아픔을 견뎌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270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이 여정의 소망은 분명했습니다. 친구들이 익숙한 안전지대를 벗어나 더 건강해지는 것, 안전하고 즐겁게 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 그리고 이 도전의 과정을 목격할 이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세상의 다양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흘려보내고 싶은 작은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이동하며 연습하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다 함께 복잡한 뉴욕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 휠체어를 타는 친구, 매 순간 예측하기 어려운 컨디션의 난조를 겪는 친구, 신체 균형을 잡기 힘들어하는 친구, 그리고 평생 러닝을 해본 적 없는 친구들에게 달리는 법을 하나하나 반복해서 가르치며,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매주 퀸즈와 맨해튼에서 훈련을 이어



갔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이 들 때면, 우리는 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며 '할 수 있다'는 외침으로 서로를 이끌고 달렸습니다. 대회 참가 신청 과정도 또 하나의 높은 벽이었습니다. 대회에 등록하기 위해 지난 1월, 마치 유명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예매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했습니다. 단체 등록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최 측 협회에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며 5개월 동안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총 45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맞이한 D-Day, 6월 28일... 이른 새벽부터 모두가 들뜬 기대감과 설렘을 안고 맨해튼 센트럴파크에 모였습니다. 약 8,000명의 러너가 참가한 NYRR 주최 'Achilles Hope & Possibility 4M' 대회장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참가자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수많은 관중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발선에 서자 사회자가 확성기를 통해 큰 소리로 '밀알선교단'을 외쳐주었고,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습니다. 관중들과 다른 참가자들의 우렁찬 환호와 응원에 힘입어, 우리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4마일을 완주해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의 목에 메달이 걸렸습니다. 이날 환하게 웃



던 밀알 친구들의 행복한 표정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대회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이 자주 올 만큼, 우리 친구들에게도 깊은 여운으로 남은 듯합니다.

덥고 습한 곳은 날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트랙을 뛰고 걸었던 친구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커다란 감동이자 위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마라톤 완주는 단순히 메달을 얻었다는 성취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육적 시야를 넓혀 주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역사였습니다. 여러 시행착오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날 함께 땀 흘린 모든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느끼는 진심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여정과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밀알 친구들을 통해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세상에 사용하실지 기대가 가득합니다. 그 기적 같은 걸음마다 늘 곁에 서서 페이스메이커처럼 더 든든히 돕고 동행하고 싶은 마음도 깊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 **황예지** (뉴욕밀알 자원봉사자)

| 남가주

2026 밀알의밤 개최

2026 밀알의밤이 오는 10월9일(금)과 11일(주일), 토렌스조은교회와 남가주동신교회에서 각각 막을 올립니다. 올해 밀알의밤 메인게스트는 '베이비복스' 보컬 '간미연'과 '황바울' 부부입니다. 베이비복스에서 1세대 중 유일 비주일을 갖춘 메인 보컬입니다. 안정적인 고음이 특징이며, 강한 하이톤 음악성과 귀여운 목소리로 밝고 경쾌한 노래를 부를 뿐 아니라 중저음의 모든 발라드를 전부 소화할 수 있는 가수입니다.

불교 신자였던 간미연은 모태신앙 황바울과 결혼하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이제는 찬양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는 주역입니다. 부부가 처음 만난 사연부터 은사를 주께 드러 찬양 사역을 하기까지의 드라마틱한 간증과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및 광고, 티켓 판매 등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유익하고 은혜로운 밀알의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LA 화요일예배 (7월)

- 7월 한달은 여름방학 기간으로 예배를 쉬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 화요일예배는 8월 4일(화)에 시작됩니다.
- LA 밀알가족을 위한 봉사자 교육이 28일(화)에 화요일예배 장소인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OC 목요일예배 (7월)

- 7월 한달은 여름방학 기간으로 예배를 쉬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목요일예배는 8월 6일(목)에 시작됩니다.
- OC 밀알가족을 위한 봉사자 교육이 30일(목)에 목요일예배 장소인 주님의빛교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사랑의교실 (7월)

7월 사랑의교실은 여름방학입니다. 사랑의교실 가족들 모두 더운 날씨에 몸 건강히,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안전하게 방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밀알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 LA 화요일모임, OC 목요일모임이 계속 은혜롭게 진행되어 밀알가족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 토요 사랑의교실 7개 브랜치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밀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 스태프들과 모든 밀알가족들, 후원해주시는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 감사 가운데 2026년 말까지 사

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 2026년도 밀알 장학생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일군들로 준비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 10월9일(금)과 11일(주일) 열리는 '2026 밀알의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준비되고 진행되길.

| 북가주

사랑의캠프의 은혜를 일상으로 이어가며

7월은 사랑의캠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일상 속에서 이어가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캠프를 마친 장애인 가족들과 봉사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함께 예배하며 웃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했던 기억은 북가주밀알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열린 2026 사랑의캠프에는 미국과 멕시코, 과테말라 등 여러 지역에서 약 450여 명의 장애인과 가족,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북가주밀알에서도 장애인과 봉사자를 포함한 60명이 참가하여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공동체의 기쁨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캠프를 마친 후에도 참가자들은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봉사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캠프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며, 봉사자들에게는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귀한 신앙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7월 화요일예배

7월은 사랑의캠프 이후 잠시 숨을 고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공동체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7일: 사랑의캠프 직후의 일정으로 화요일예배를 쉬며 각자의 자리에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4일: 이우성 간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고(故) 이용현 권사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친 후, 유가족들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1일: 상반기 마지막 화요일예배를 산호세 한인장로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환대와 정성 어린 식사 섬김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렸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난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년 상반기 동안 화요일예배를 위해 식사와 찬양, 봉사로 함께해 주신 지역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가주밀알은 하반기에도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가족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산호세 사랑의교실

여름방학 기간에도 하반기 사역을 위한 준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의교실을 통해 장애인 친구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새로운 봉사자들과 교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친구들과 1:1로 함께 걸어갈 봉사자와 미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재능으로 섬겨 주실 선생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 사랑의교실이 더욱 풍성한 배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 사랑의캠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청년밀알에서는 참가자 16명, 봉사자 24명, 스태프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처음엔 봉사자가 부족해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많이 했고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으로 친구들과 봉사자들이 1대1 매칭을 넘어 1대2 매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친구들과 봉사자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캠프 참가자와 봉사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청년밀알은 7~8월 두 달간 여름방학입니다. 9월 12일(토) 하반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장소: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시간: 10시 30분~3시 30분)

• 청년밀알 봉사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하반기 봉사자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8월 29일(토))

•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성경읽기 - 시간: 월, 수, 목 오후 8시 40분~9시 10분, ZOOM ID: 422 748 7456

• 방학기간 중에 청년밀알 친구들과 가족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하반기를 기대하며

북가주밀알은 하반기에도 화요일예배와 사랑의교실, 사랑방 모임을 비롯하여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장애인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밀알 아트쇼와 가을 사역, 그리고 밀알의밤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가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가주밀알은 앞으로도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 가정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역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교회와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 사랑의캠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인과 가족들, 봉사자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세요.
- 2026 하반기 화요예배를 통해 지역교회와 북가주밀알이 더욱 하나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사랑의교실과 청년밀알을 섬길 새로운 봉사자와 교사들을 보내 주시고, 1:1 봉사자들이 풍성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하반기에 준비되는 청년밀알 아트쇼와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장애인 가족들과 보호자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 북가주밀알 스태프들과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 하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고, 더 많은 장애인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시애틀

시애틀 사랑의교실

살롱! 사랑의교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사랑의교실은 '형제교회 넥스트'와 여러 교회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장영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고, 장아련 사모님의 크래프트와 지정은 선생님의 음악수업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2026년 1학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점심은 벨링햄 화평교회에서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체육관에 가서 재미있는 게임과 체육수업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교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7, 8월 방학동안에도 밀알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오후2:30까지 에드몬즈의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준 목사 425-444-1669, 남성식 디렉터 425-361-9368)

시애틀 밀알아카데미(S.M.A)

매주 화요일 성인 장애인을 위한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음악수업, 크래프트, 탈춤, 북클럽, 산책, 마트 장보기, 영화보기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예배를 드리고, 김초미 선생님의 북클럽을 했습니다. 장아련 사모님께서 정성으로 준비하신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엔 우든빌 AMC극장에 가서 <토이스토리5>를 보았습니다. 너무도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모두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는 SMA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더 많은 봉사자(남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봉사자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자로 자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타코마 밀알아카데미(T.M.A)

매주 목요일 타코마 성인 장애인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수업, 체육, 크래프트, 산책, 견학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장영준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셨고, 박현실 사모님이 음악수업을 해 주셨습니다.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서 정성으로 섬겨 주신 풍성한 점심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 볼링장에 가서 신나게 볼링을 쳤습니다. 이날 2026년 1학기 마지막 모임을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학동안에도 TMA모든 가족들이 늘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남수 가정이 한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늘 건강하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많은 봉사자들로 인해 TMA의 귀한 사역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사랑의캠프 준비

올해 시애틀밀알 사랑의캠프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3일 동안 스텐우드에서 '웜비치 크리스찬 캠프'에서 있습니다. 올해 등록 인원은 현재 70명이며, Exodus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매년 갖는 캠프이지만 열심히 준비하여 올해는 더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는 일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밀알에 귀한 사무실과 사랑의교실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타코마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S.M.A 장소와 15인승 Van을 사용하도록 해 주시는 시애틀 형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SMA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낮은 울타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사랑의교실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형제교회, 시애틀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알립니다

- 장영준 목사는 밀알 캠프 준비와 밀알선교

단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 사랑의교실은 6월 27일 방학하여 9월 5일에 개학합니다.
- TMA는 6월 25일에 방학하여 9월 3일에 개학합니다.
- 시애틀형제교회 Star Ministry(장애인 주일학교)예배가 주일 오후12시에 있습니다.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자폐 및 지적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예배를 소개해 주세요.
- SMA(시애틀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3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탈춤, 독서클럽,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시애틀 형제교회 빌딩2, 109호)
- TMA(타코마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11:0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요가, 산책,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밀알에서 필요한 것

- 시애틀 사랑의교실 친구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할 개인과 교회를 찾습니다. (견학, 스포츠게임, Dancing, 태권도 지도, 동물원관람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재정 지원)
- 매주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필요한 점心和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봉사해 주실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필요합니다. (종이접시, 컵, 플라스틱 수저, 포크, 냅킨, 물도 필요합니다)
- 매주 S.M.A(화) 와 T.M.A(목) 성인장애인 예배와 활동 모임에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교회와 개인을 찾습니다. (20명)

기도제목

-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밀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 미주밀알 총단장직을 맡은 장영준 목사의 건강과 지혜를 위하여
- 장애인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와 봉사자를 보내 주세요.
- 사랑의교실과 SMA & TMA친구들과 가정, 봉사자를 위하여
- SMA에 새로 오신 선생님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새로 온 사랑의교실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밀알아트센터'가 세워지도록
- 매주 화, 목요일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SMA, TMA를 위하여
- 사랑의교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시애틀 형제교회 장애인 주일학교 Star Ministry(장애인)를 위하여

| 밴쿠버

밀알 사랑의교실 토요모임

밀알에서 행복한 친구들과 밀알봉사와 함께 성장해 가는 밀알러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밴쿠버밀알 ‘사랑의 교실 Happy Together’는 행복한 예배와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6월 7일에 2025/26 학년도 종강감사예배와 함께 종강 세레머니를 하였고, 2026/27 학년도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밀알러(발룬티어) 리쿠르트

‘Love in Action, Faith in Motion!’ 밀알러로 함께할 발룬티어를 찾습니다. 축복된 경험을 함께 하고 싶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안내해 드리는 방법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밀알은 좋은 지원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훌륭한 봉사자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www.vancouvermilal.com
> Get Involved> Become a Milaler> Program Milaler

여름 사역

7월 10-11일에는 리더십 리트릿을 열고 2026/27 학년도 및 10월에 있을 밀알의밤을 포함하여 향후 진행할 밴쿠버밀알 선교사역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7월 25일에는 재즈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밀알러(발룬티어) 리쿠르트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가질 밀알러 오리엔테이션과 사랑의교실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알1일 단기선교

<밀알1일 단기선교>는 아주 특별한 선교이며, 시간을 많이 내지 않고도, 따로 휴가를 내거나, 멀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또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단기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밀알이 진행하는 사랑의교실에 몇 시간 함께 하는 것으로 훌륭한 단기선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문의, 604-339-4417 단장 이상현 목사).

참조: www.vancouvermilal.com > Get Involved> Become a Milaler> Day Mission Milaler

밀알선교사역 나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밀알선교사역 및 장애인'선교'에 관하여 알기 원하거나, 함

께 할 관심이 있는 교회, 기관 및 단체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04-339-4417).

e-transfer 후원방법 안내

이트랜스퍼를 통하여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밀알을 후원하시면 세금감면을 위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하실 때, 영문이름, 포스탈코드를 포함한 주소, 이메일을 남겨 주세요. (연락처: giving@vancouvermilal.com)

기도제목

- 2026년에도 밴쿠버밀알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 주시고, 밴쿠버의 장애인들과 가정들이 밀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 안에 살게 하소서.
- 밀알가족들, 그리고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장애인의 회복으로 표상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쓰임 받게 하시고, 복음사역, 성령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게 하시어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밀알로 세워 주소서.
- 장애인선교를 위하여 함께 하는 이들과 기업들과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장애인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하며, 그 중인으로 살게 하는 밀알선교를 함께 이루어가는 좋은 봉사자, 기도 및 재정 후원자들을 붙여 주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소서.
- 8월의 아트 페스티벌과, 하반기 사역준비 활동, 밀알러 리쿠르트와 오리엔테이션 준비 및 밀알의밤 준비, 굿즈프로젝트: '투게더', 밀알러프로젝트: '꿈너머 꿈'을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 단장 이상현 목사님과 유혜정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텍사스

토요 사랑의교실

사랑의교실은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일주일동안 텍사스 밀알 여름성경학교 VBS를 진행하였고, 서부 밀알 사랑의캠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토요 사랑의교실에 점심봉사를 원하시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의 텍사스밀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 사랑의교실에 참여하기 원하는 5세 이상 장애인들은 연락주세요. (267-467-5971, txmilal@gmail.com)

2026년 밀알 여름성경학교 진행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달라스 베다니장로교회, 인투달라스교회, 뉴송교회, 수정교회, 세미한교회에서 1일 단기선교로 VBS를 하루씩 인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

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지역교회와 1:1 봉사자로 참여한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텍사스밀알 합창단원 모집

하나님을 노래를 통해 찬양하기 원하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 모두를 초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선교단으로 문의하세요. (267-467-5971, txmilal@gmail.com)

텍사스밀알 오케스트라 6기 단원 모집

Many hearts, One harmony.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주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장애인 인식 개선과 지역 선교를 같이할 15세 이상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바이올린, 비올라, 관악 및 퍼커션

- 모집 일정: 8월 7일까지 신청 받음
- 신청비: \$30
- 오디션 일정: 8월 8일 오디션 실시
- 신청 문의: 연락을 주시면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밀알선교단 267-467-5971, txmilal@gmail.com)

기도제목

- 텍사스밀알선교단을 통해서 장애인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보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함께 한 봉사자들이 밀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밀알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 텍사스 내 다른 지역에 사랑의교실 사역을 확대하길 원합니다. 합당한 만남을 주장하소서
- 지금의 봉사자들을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소서
-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어, 미술, 운동, 행동치료 등의 전문가 그룹을 조성하게 하시어 밀알 토브 사역이 진행되게 하소서
- 지역의 여러 교회가 밀알 사역을 선교지로 알게 하시어, 선교에 동역하는 마음을 부어 주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 선교의 창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하소서
- 7월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 합창단원이 모여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적합한 6기 오케스트라 단원이 모여 다음 연주회까지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게 하소서
- 2026년에 계획한 사역이 순직한 방법으로 진행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이 이뤄지게 하소서
- 새로 시작하는 2026-27 사랑의교실과 밀알아카데미를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보내주시고, 같이할 봉사자를 보내 주소서

재정보고 2026년 6월

| 남가주

■ INCOME: \$93,319.20

Individuals: \$5,901.00 \$30 Hyoung Seo, Missionary Deborah / \$50 Hye Ran Lee / \$100 Anthony D. & Chun C. Gamble, Ho Myoung & Won Sook Lee, Hyun Pack, In Soon Chun, June Sin, Kyong Ok Lim, Mi Sup Lee, Sung Jin Kim / \$101 LA Milal / \$200 Jaemin Youk, Kyung Won & Sangmi Kang / \$300 Ki Sook & Yoon Ho Kang, David Heung & Jeong Mi Kim / \$390 Keun Suk Park / \$500 Steven Chul Kim / \$1,000 Inju Uyehara / \$2,000 Yong Gyu & Heakyung Jeon

Churches & Businesses: \$8,720.00 \$50 Alabama Full Gospel Church / \$100 Han Woo 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Rohthem Presby. Church / \$150 The Lighthouse Mission Church / \$200 Beautiful Hill Presbyterian Church, Choong Hyun Ch(Good Samaritan Fellowship), God's Righteousness Church, Korean Young Saeng Presby Church,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Salt Covenant Church / \$220 Bethel Korean Church / \$250 El Paso Central Baptist Church, The Lord's Community Church / \$300 Berendo Street Baptist Church,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Full Gospel L.A Church, H.D. Grace Church, Irury LLC, Las Vegas Vision Church, Sarang Community Church,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 \$400 Bankcard Services, Hyungje Presbyterian Church of SC / \$500 General Metal Recycling Co. / \$600 Suh Moon Presbyterian Church / \$900 Thanksgiving Church / \$1,200 Irvine New Life Korean Church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79,698.20 \$50 Donor Advised Fund / \$300 Joanne Lee for Class AGAPE OC Lunch / \$49,603.20 Camp AGAPE / \$9,600 FBB Grant / \$18,445 Camp Fundraising / \$700 Designated for Rent

■ EXPENSE: \$132,557.90

Class AGAPE: \$2,867.67 \$1,162.55 Meals & Snacks / \$187.47 Materials & Supplies / \$1,255.61 Events & Meetings / \$162.04 Repair / \$100 Camp fee support

Camp AGAPE: \$103,876.39 \$85,135 Venues / \$6,164.94 Transportation / \$1,812.79 Camp Meals & Snacks / \$5,064.18 Camp Supplies / \$2,571.48 Pre-camp expenses / \$3,128 Other camp expenses
Love Festival: \$1,966.09

Media Mission: \$1,692.21 \$1,650 M&W Publication / \$42.21 PO Box & Return mail

Charitable Supports: \$1,681.74 \$500 Periodic Supports / \$300 Palm Misson Church / \$200 Altogether in Love Tickets / \$300 Missionary Concert Support / \$221.74 Miracle Learning Center / \$60 Funeral flower for World Milal Pastor Chang family / \$100 Condolence to Pastor Lee family

Ministry Expense: \$174.26 \$36 Birthday Cake / \$138.26 Shimbang

Fundraising Expense: \$2,990.73 \$2,773.02 Merchandise / \$217.71 Packaging supplies

Payroll Expense: \$9,244.57 \$5,803.66 Salaries & Wages / \$506.16 Payroll Tax / \$840 Employee Benefit / \$2,094.75 Housing Support

Admin & Management: \$7,010.01 \$5,011.23 Rent / \$61.03

Woongjin / \$332.25 FBM / \$139.92 Telephone & Internet / \$299.86 Electricity / \$39.32 Office Supplies / \$878.40 Alliance Fee for America Milal / \$35 Bank Charge / \$213 SBA EIDL Interest

Auto Expense: \$1,054.23 \$1,046.49 Gas / \$7.74 Maintenance

Transfer Funds to Scholarship Account: \$30,000.00

Previous Carry over Balance: \$119,160.89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49,922.19

■ Milal Scholarship Finance Report

INCOME: \$18,750.00 <Churches & Businesses \$600: \$300 Irvine Onnuri Church / \$300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Specials & designated \$18,150: \$1,000 Designated to Lee Family / \$650 World Milal / \$500 Milal Night Brochure Ads / \$15,000 Milal Night Contribution / \$1,000 Designated to Third countries>

EXPENSE: \$21,967.25 <Class AGAPE \$6,201: Teachers' Compensation> <Scholarship \$15,766.25: \$1,800 Collegians / \$1,000 Designated Scholarship / \$5,000 Third countries / \$7,066.25 Reserved Ministries Support / \$900 Volunteers Aids>

Transfer Funds from General Account: \$30,000.00

Previous Carry over Balance: \$19,285.59 |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46,068.34

| 북가주

■ INCOME: \$27,020.11

Individuals: \$3,600.00 \$50 김신자, 김애경, 김영, 이우성 / \$100 Klepeis Family, Jonathan & Joung Ok Han, 김만종&정애, 김성준, 안소영, 이석권&정찬미 / \$200 최영훈&재현 / \$300 공명진 &은정, 김정기&남경아, 레이첼가정, 오영수 / \$400 이학천&지선 / \$500 정소라가정, 차현상&은미

Churches & Businesses: \$8,085.11 \$50 Golden Key Fine Jewelers / \$85.11 IBM / \$100 브루스리미용실, 산호세순복음중앙 교회, 트레이시주은혜교회 / \$200 주순길교회 / \$300 몬트레이한인 제일장로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밀알목장) / \$400 뉴라이프교회 / \$600 상향중앙장로교회, 심포니교회, 파스로블스한인장로교회 / \$750 세계선교침례교회 / \$1900 임마누엘장로교회 / \$2000 살리나스영광교회

Designated Donation: \$15,335.00 <사랑의교실 \$1,200: \$100 김정기&남경아, 박상우가정 / \$200 안수빈가정 / \$300 엠마오선교회 / \$500 산호세영락교회> <화요예배 \$430: \$100 김정기&남경아, 이강진&권유진 / \$230 전송화> <사랑의캠프 \$12,305: \$1000 오상철&유희정 / \$4,605 펀드레이징수익금 / \$6700 캠프참가비> <멕시코지정후원금 \$1400: \$400 달라스밀알 / \$1000 AOGF>

■ EXPENSE: \$29,858.94

Mission Expenses: \$26,124.20 사례비(5인) \$7,056.35 / 선교 활동비 \$327.17 / 미주밀알지원 \$601.60 / 은급비 \$300 / 경조비 \$100 / 화요예배 \$309.46 / 사랑의캠프 \$15,629.62(참가비 \$5,000 / 버스대절&차량관련 \$9,096.53 / 도시락 \$1,200 / 봉사자교육 \$333.09) / 멕시코밀알지원 \$1,800

Admin. & Management: \$2,094.45 유틸리티 \$171.58 / IRS Tax \$492.87 / 사무실임대료 \$1,400 / 송금수수료 \$30

Auto Expense: \$320.09 유류비 \$281.61 / 세차 \$38.48

Media Mission: \$1,320.20 밀알&세계발송비 \$338.06 / 밀알 &세계인쇄비 \$982.14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24,409.09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21,570.26

정정: 미주 <밀알&세계> 2026년 7월호에 실린 북가주밀알 2026년 5월 재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Income: \$21,026.74 / Expense: \$15,619.10 /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9,001.45 /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24,409.09

| 시애틀

■ **INCOME: \$25,153.00**

Individuals: \$5,690.00 \$30 남숙희 / \$50 이영자, 조성배, 박진경 / \$100 송인숙, 경자훈, 오수미, 노현숙, 윤태준&이정주, 김초미, 김상수, 손희섭 / \$150 김복조 / \$200 조천석, 문창선, 김해정 / \$300 권무성&최은주 / \$400 최지은 / \$460 장영준&장아련 / \$1,000 이명운 / \$1,800 곽은주

Churches: \$2,050.00 \$100 밴쿠버 사랑장로교회, 자유교회, 벨링햄화평교회, 타코마 삼일교회, 시애틀 물댄동산교회, 목양감리교회, 퓨얼럽 한인장로교회, GSM / \$150 페더럴웨이 베델침례교회 / \$200 페더럴웨이 중앙장로교회 / \$300 시애틀연합장로교회(다니엘, 한나) / \$600 낮은올타리교회

Businesses: \$400.00 \$300 Fair Ridge Law Firm / \$100 임학수 CPA

Designated Donation: \$17,013.00 \$2,250 SMA&TMA(\$1,950 회비, \$300 이현주) / Fundraising \$4,915 / 사랑의캠프 \$9,848(\$1,120 회비, \$8,728 캠프후원)

■ **EXPENSE: \$12,066.36**

Mission Expense \$3,828.44 / Admin & Management \$1,511.66 / Media Mission \$1,271.62 / Class AGAPE \$718.36 / 상회비 \$460.20 / SMA&TMA \$1,719.37 / Tax \$481.60 / Special event \$49.56 / Fundraising \$626.85 / Agape Camp \$8.85 / Insurances \$338.11 / Pastoral Visit \$751.74 / Retirement Plan \$3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83,593.03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96,679.67

| 밴쿠버

■ **INCOME \$5,506.00**

Individuals: \$650.00 \$10 김형용, 계영실 / \$20 이경순, 한은순 / \$30 원소현, 테레사최, 정미영 / \$50 이혜영, 이재림 / \$100 이상현&유혜정, 김찬수 / \$200 하준석

Churches & Businesses: \$1,000.00 \$100 헤브론교회 / \$200 Oronia, WJD Foundation / 시온합창단 \$500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3,856.00 <사랑의교실 \$1,150: \$50 오정석, 강향숙 / \$100 김계은, 곽혜경, 허경찬 / 강향숙 \$200 / \$250 이상화 / \$300 윤영로> <6월 사랑의교실 예배헌금 \$480: \$10 윤관진 / \$15 서예나 / \$25 무명 / \$40 에드윈, 서창성 / \$50 오예찬, 이예담, 김민재 / \$100 이해, 장민음> <함께걸음콘서트 티켓 & 도네이션 \$1,726> <designated 500: 코람데오>

■ **EXPENSE: \$15,916.37**

Payrolls: \$4,104.79 사례비(2인) \$3,654.79 / 은급비 \$450 (2/4)

Mission Expense: \$87.16 활동비

Events: \$167.91 함께걸음콘서트 디브리프 모임

Class AGAPE: \$294.67 <Happy Together Class \$145.02: 통신비 \$61.60 / 줌사용료(6월) \$83.42> / 비전팀미팅 \$149.65

Admin & Management: \$4,577.20 <General \$77.20: 통신비 \$67.20 / 은행 fee \$10> <Rent \$4,500: 사랑의교실 베뉴 (1-6월)>

Taxes: \$527.51 payroll

Insurance: \$1,723 Liability Ins.(1년)

Auto Expense: \$934.13 운행비 \$300.88 / 뱅보험 \$203.71(7회차) / 뱅 패이먼트 \$429.54

Designated Expense: \$500.00 코람데오

차용리턴: \$3,000.00 (1차)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28,033.35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7,622.98

| 텍사스

■ **INCOME: \$7,535.62**

INDIVIDUALS: \$585.00 \$20 진현주 / \$25 방진원 / \$50 김태남 &이선화, 김희경 / \$80 정호영 / \$180 박진영, 채경수&임현정

CHURCHES & BUSINESSES: \$2,655.62 \$5.62 interest / \$50 프렌즈교회, 포트워스제일장로교회 / \$100 라이프교회, 나눔교회, 빛과소금의교회, / \$150 영락장로교회 / \$200 뉴저지밀알선교단, JDX Mission / \$300 주님의교회 / \$600 라이트하우스교회 / \$800 베다니장로교회

DESIGNATED DONATION: \$4,295.00 <사랑의교실: \$100 NORRIYA LLC. / \$200 김병윤, 무명 / \$400 FENY / \$500 Justin Kim / \$2,575 The One Hero Project> <아카데미&오케스트라: \$100 구본진 / \$20 VBS등록비> <직업재활: \$200 세미한 Beanyard coffee>

■ **EXPENSE: \$6,284.07**

MISSION EXPENSE: \$4,413.49 Payroll \$1,385.25 / housing support \$1,700 / 밀알&세계 인쇄비 \$405 / 지단상회비 \$155.34 / 은급비 \$288.02 / 간사사례 \$300 / 단장활동비 \$94.69 / 이사회모임 \$85.19

CLASS AGAPE & 밀알아카데미 & 오케스트라: \$181.90 서부밀알 캠프 참가진행비

ADMIN & MANEGEMENT: \$1,688.68 장소사용료 \$200 / 카드 등 재정관련 수수료 \$67.45 / 통신비 \$100 / IRS tax \$229.50 / NTTA toll \$240 / Gas \$286.51 / Insurance \$100 / Utility \$236.33 / 우표구입 \$78 / 차량관리비 \$150.89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8,728.00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9,976.55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걸,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프,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실행단원() 후원단원() 월 \$5() \$10() \$20() \$30() \$50() \$100() 그외 \$()

서명: _____ 날짜: _____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 worldmilal.org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wheatmissioninus@gmail.com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단장) | milals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admin@milalsca.org

정기모임	OC	매주 목 오후 7: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LA	매주 화 오후 7:00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월례기도모임	매월 마지막 화 오후 7:30	Zoom	
사랑의교실	OC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연합장로교회	1565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LA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동부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선한정지교회	2701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얼바인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토렌스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88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성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통합반	매주 토 오후 2:30 ~ 오후 6:30	남가주밀알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Milal Mission in Northern California 북가주밀알선교단 (김정기 단장) | milalnca.org

871 Coleman Ave. Suite 205, San Jose, CA 95110 / Tel: 408-605-2134 / norcalmilal@gmail.com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예배와 찬양모임

정기화요모임	산호세	매주 화요일 저녁 6:30 ~ 9:00	세계선교침례교회(1,2,4,5주)	62 S.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
			산호세한인장로교회(3주)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사랑의교실	산호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산호세새소망교회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산타클라라	매주 토 오전 10:30 ~ 오후 3:30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1001 Ginger Lane, San Jose, CA 95128

Milal Mission in Seattle 시애틀밀알선교단 (장영준 단장) | seattlemilal.com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 Tel: 425-444-1669 / Fax: 425-774-2499 / seattle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시애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시애틀연합장로교회	8506 238th. SW, Edmonds, WA 98026
Seattle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형제교회	3700 Monte Villa Pkwy. Bothell, WA 98021
Tacoma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타코마중앙장로교회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Milal Mission in Vancouver 밴쿠버밀알선교단 (이상현 단장) | vancouvermilal.com

Instagram: @Vancouver_milal | Youtube: @Woorilog 우리로그, @Vancouvermilal 밴쿠버밀알

14625 108 Ave, Surrey, Upper Room, BC, V3R 1V9 CANADA / Tel: 604-339-4417 / vanmilal01@gmail.com

사랑의교실 토요일 Happy Together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써리장로교회	15964 88th Ave., Surrey, BC, V4N 1H5
		예배, 작업치료, 음악, 댄스, 사진, 크래프트, 운동, 레크레이션, 베이킹, 공동식사, 아웃팅, 난타교실	

Texas Milal Mission 텍사스밀알선교단 (채경수 단장) | txmilal.org | facebook.com/texasmilal

2828 E. Trinity Mills Rd, #360, Carrollton, TX 75006 / Tel : 267-467-5971 / Fax: 682-292-1365 / tx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성경적상담	매주 월~금 오전 10:00 ~ 오후 3:00	밀알선교센터	2828 E. Trinity Mills Rd, #300, Carrollton, TX 75006
목요 밀알아카데미	매주 목요일 오후 1:00 ~ 오후 4:00	달라스우리교회	2633 Royal Ln, Dallas, TX 75229
밀알청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5:00 ~ 오후 6: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4: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화요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Zoom ID: 895 0864 4965 / Passcode : 152562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세밀연 미주총단	워싱턴 / 리치몬드 / 캐롤라이나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 멕시코
세밀연 유럽총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세밀연 한국총단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기타지역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